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두더지 신랑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우리 자신의 소중한 특별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주제** : 자존

**핵심어** 두더지, 돌미륵, 결혼

**한국문화** • **목표** : 돌미륵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돌미륵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말한다.  
• **단어** : 두더지, 해, 바람, 돌미륵  
• **표현** : 두더지 부부는 해님을 찾아갔어요.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두더지 신랑’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수수께끼를 준비했어요. 한번 맞춰 볼까요? 나는 동물이에요. 나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아요. 입이 길고 뾰족하고 이빨이 날카로워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두더지랍니다. 두더지는 땅속에서 땅굴을 만들어 생활하고, 지렁이나 작은 벌레를 먹고 살아요. 오늘은 두더지 부부가 딸 두더지의 신랑을 찾는 이야기예요. 어떤 신랑을 찾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두더지 신랑’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에 어느 땅속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두더지 부부는 귀여운 새끼 두더지를 낳았어요. 아빠 두더지와 엄마 두더지는 온 정성을 다해 딸 두더지를 키웠어요. 세월이 지나 딸 두더지는 땅을 잘 파는 멋진 아가씨가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 두더지가 아빠 두더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니, 약한 두더지와 결혼할 수 없어요. 가장 힘센 신랑을 찾아야겠어요. 해님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니 가장 힘이 세지 않을까요?”

아빠 두더지가 말했어요. 엄마 두더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더지 부부는 하늘의 해를 찾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해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아빠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자 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지요. 하지만 구름이 나를 가리면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 구름이 저보다 더 힘세지요.”

듣고 보니 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두더지 부부는 곧장 구름을 찾아갔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해님보다 더 힘센 구름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엄마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자 구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해님을 가려 온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나를 흩어 버리면 해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 바람이 저보다 더 힘세지요.”

듣고 보니 구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두더지 부부는 곧장 바람을 찾아갔어요.

“해님보다, 구름님보다 더 힘센 바람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엄마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자 바람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세상을 어둡게 하는 구름을 날려 버리고,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기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돌미륵만은 절대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 돌미륵이 저보다 더 힘세지요.”

듣고 보니 바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두더지 부부는 곧장 돌미륵을 찾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해님보다, 구름님보다, 바람님보다 더 힘센 돌미륵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아빠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자 돌미륵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저는 천 년이 지나도 깨끗이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발밑에 사는 두더지가 흙을 파내면 꼼짝없이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두더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요.”

돌미륵의 말을 들은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어요.

“두더지라고요? 우리 두더지가 해님보다, 구름님보다, 바람님보다, 돌미륵님보다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고말고요.”

돌미륵의 말을 들은 두더지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우리 두더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단다. 멋진 우리 딸은 힘센 두더지랑 결혼하면 좋겠구나.”

“아빠. 저는 이웃집 두더지 총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딸 두더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침내 두더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을 찾았습니다. 바로 두더지 총각이지요! 두더지 딸은 두더지 총각과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두더지 부부는 힘센 신랑을 찾으러 다녔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말해 볼까요? 맞아요, 해를 찾아갔어요. 구름도, 바람도, 돌미륵도 찾아갔어요.

여러분, 두더지가 제일 힘이 세다고 누가 알려 주었나요?

맞아요. 돌미륵이에요. 미륵은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처럼 생겼지요. 옛날 사람들은 미륵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돌미륵은 바로 돌로 만든 미륵상이에요. 지금도 우뚝 선 커다란 돌미륵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어요. 돌미륵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두더지 신랑'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두더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특별한 신랑을 찾고 싶었어요. 마침내 찾아낸 신랑은 두더지 총각이었어요. 작은 두더지가 특별하고 소중하듯이 우리 모두 소중하고 특별해요. 여러분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한 주 보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을 꼭 안아 주며 "사랑해!"라고 말해 보세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땡땡!♫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